

가족의 커뮤니티화

— JTBC <청춘시대>, 정상가족을 탈피한 청춘 연대

권지혜

대학생이 되어 셰어하우스(share house) ‘벨 에포크’에 살게 된 은재(박혜수 분)는 아침에 일어나 포스트잇 한 장을 발견한다. “잘 땀 불 ㄱ고 자요.” 룸메이트 진명(한예리 분)이 남긴 쪽지다. 낯선 룸메이트에게 받은 건조한 어투의 쪽지에 은재는 내심 당황한다. 부엌으로 향하는 은재. 냉장고에는 아기자기한 반찬들과 음료수들이 각자의 이름표와 함께 뽁뽁하게 놓여 있다. 공명으로 사놓은 음식도 있지만, 각자의 영역이 확실해 보인다. 서로 다른 취향과 식성을 가진 5명의 여자들이 사는 이곳은, 언뜻 보기에는 개인주의가 철저하다. 늘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가던 은재는 이곳의 질서가 익숙하지 않다.

얼마 후 일요일 아침, 은재는 재미있는 풍경을 보게 된다. 하우스메이트들이 함께 청소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 명은 거실을 쓸고, 한 명은 주방을 치우고, 나머지 한 명은 화장실을 닦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재는 이들 역시 가족과 같은 친밀감을 공유한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들은 서로의 속옷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기본이고, 남이 들어간 화장실에 무작정 따라 들어가는 막역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밤마다 식탁에 둘러앉아 맥주를 마시며 고민을 나누기도 한다. ‘벨 에포크’에는 그렇게 기존의 혈연 기반 가족들이 공유하던 정서가 있다. JTBC <청춘시대>는 그렇게, 가족의 커뮤니티화를 그려낸다.

공간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미디어는 언제나 당대의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을 반영해왔다. 그중 가족이나 결혼에 대한 담론은, 미디어가 제시하는 모델이 시대적 욕망의 바로미터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근대화 이후의 미디어는 중산층 정상가족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을 종종 다루곤 했다. 예를 들어, 1960년 개봉한 김기영 감독의 <하녀>는 신분 상승의 욕망을 품고 상경한 하녀의 시선으로 경제 성장 시기에 자수성가한 중산층 가정을 담아내며 당대 사람들의 판타지를 재현하였다. 이후로도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는 가부장적 성별 분업이 이루어진 단란한 가정을 보여주며 대중적 욕망과 결합하였다.

경제 성장 이후 미디어는 적극적으로 ‘4인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내면화

했다. ‘정상 가족’이란, 보편적 부모와 두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을 말한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들이 성장기에 접어들고, 신도시가 우후죽순으로 개발되던 90년대부터 이런 형태의 가정은 드라마의 보편적인 배경으로 작동했다. MBC <보고 또 보고>(1998), KBS2 <장밋빛 인생>(2005), MBC <내조의 여왕>(2009) 등 많은 유명 작품이 ‘4인 정상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그들이 그 일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해왔다. 그것이 당대 시청자들의 수요와 부합했기 때문이다.

그랬던 미디어가, 이제는 훨씬 다양한 가족과 주거 형태를 소개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사회 변화와 관련이 있다. 실제로 ‘4인 정상 가족’의 형태를 띠지 않는 가구의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국내 1인 가구의 수는 총 520만으로,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1990년과 비교하면 3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2005년 기준 가장 흔했던 이제 1~3인 가구보다 적어졌다.¹⁾ 이러한 사회 변화에 맞추어 ‘혼밥(혼자 먹는 밥)’, ‘혼술(혼자 마시는 술)’과 같은 개념이 유행어가 되었고, 이를 기민하게 포착하여 담아내는 제작자들도 있었다. 지난 9월 첫 방송을 시작한 tvN 드라마 <혼술남녀>는 지친 하루를 ‘혼술’로 위로받은 수험생들의 일상을 그린다.

이번 여름 JTBC에서 방영된 드라마 <청춘시대> 역시 바로 이런 맥락에서 주목할 수 있다. <청춘시대>는 셰어하우스에 살고 있는 다섯 명의 젊은 여자들을 그린다. 이들은 혈연에 기반을 둔 가족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생물학적 의미의 가족보다도 친밀하다. 가치관이나 성향은 각기 다르지만 같은 공간 안에서 일상을 나누고 비슷한 사회 문제를 겪으며 연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청춘시대>가 젊은 학생들이 한 공간 안에 살아가면서 겪는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최초의 작품은 아니다. 셰어하우스가 아닌 ‘하숙’을 배경으로 하는 시트콤이나 드라마는 훨씬 이전부터 주목을 받았다. MBC <논스톱>이 대표적인 예다. <논스톱> 시리즈는 하숙집 청춘들의 고민과 일상을 유머러스하게 그려냈다는 평과 함께 한국 시트콤사에 한 획을 그었다. 그런데 <청춘시대>는 <논스톱>보다 조금 더 쓸쓸한 분위기를 풍긴다. <논스톱>이 대학생의 일상을 유쾌한 판타지로 그려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청춘시대>는 보다 현실적인 유사-가족 공동체를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진명은 ‘벨 에포크’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다. 아르바이트를

1) 이호건 기자, “4인 가족은 옛말… ‘나 홀로 1인 가구’ 가장 많다”, SBS뉴스, 2016.09.07.

3개나 할 정도로 성실하지만 학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관계로 28살이 되도록 대학 졸업을 하지 못했고, 어렵게 번 돈마저 식물인간 동생의 병원비나 엄마의 빚 청산에 쓰이곤 한다. 이러 진명이 지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대기업에 입사 원서를 내고, 서류를 통과한 그는 면접을 보러 간다. 하우스메이트들은 자신의 일처럼 진명을 응원한다. 이나(류화영 분)는 낡은 진명의 구두를 보고 못내 마음이 쓰여 버스정류장까지 자신의 새 구두를 들고 전력질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두는 진명에게 전해지지 못하고, 진명은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다. 이후 진명의 기분을 살피며 슬퍼하는 하우스메이트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긴다. 가족의 대소사 앞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연대하는 모습, 기존의 가족드라마에서 많이 보이던 설정이다. 물론 이런 설정은 우정이나 사랑을 주제로 한 청춘물에도 있다. 그러나 <청춘시대>는 젊은이들의 그러한 감정적 연대가 ‘거실’에서, ‘식탁’에서, ‘현관’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특징이다.

<청춘시대>의 ‘가족적인’ 분위기는 tvN <응답하라 1994>(2013)와도 유사성을 갖는다. 두 작품 모두, 상경한 학생들이 신촌의 하숙 또는 세어하우스에서 가족처럼 함께 지내는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작품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세어하우스의 주인할머니 (문숙 분) 캐릭터로부터 부각된다. 분량만 보면 카메오 출연처럼 보이지만, 이 주인할머니 캐릭터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주인할머니는 철저히 개인주의적이다. <응답하라 1994> 속 신촌 하숙집의 ‘정 많은 서울 엄마’ 캐릭터와는 대조적으로, 신촌 ‘벨 에포크’의 주인할머니는 우아하게 음악을 듣고, 와인을 마시고, 여행 짐을 싸며 오직 자신의 일상에만 열중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학생들의 공간과 자신의 공간을 확실히 분리한다. 청소든 빨래든 밥이든 모두 학생들의 몫이다. 주인할머니는 공적인 업무가 아니면 그들의 살림에 일절 신경을 쓰지 않는다. 배경은 똑같은 신촌인데, 1994년과 2016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하숙’과 ‘세어하우스’의 단순한 구조적 차이일까. ‘세어하우스’에는 ‘하숙집 엄마’와 같은 ‘유사-부모’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쩌면 이는 이 시대의 청춘들이 더 이상 정상가족의 안정감에 기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일지도 모른다. 그들에게겐 그저, 마음 맞는 이들과 함께 있을 공간이 필요할 뿐이다.

변화한 여성상이 드러나는 커뮤니티

<청춘시대>는 여성들이 남자의 연인이나 엄마 역할을 넘어 각자의 주체적이고 개성있는 삶을 꾸려나가고, 서로 연대한다는 점에서 징후적이다. 기존

의 많은 드라마들이 남성중심적 사회구조에 순응하는 수동적 여성상을 그려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여자는 그저 예쁘게 태어나서 결혼을 잘 하면 된다”는 식의 신데렐라 서사들이 그간 얼마나 많았던가. 10여년 전 흥행한 KBS2 <풀하우스>(2004)나 MBC <파리의 연인>(2004)을 떠올려보자. 당시 군산여성의전화 민은영 사무국장은 당시 시청률이 50%을 넘은 <파리의 연인>에 대해 “여자주인공을 통해 여성의 능력과 성취를 다루기보다 착하고 가난한 여성이 그룹의 사장을 만나 신분이 상승하는 신데렐라의 환상을 심어준 드라마”, <풀하우스>에 대해 “여성이 지니고 있는 내면의 잠재력이나 능력을 비하하는 장면이 최종회에 이르기까지 전개되었다”고 지적하였다.²⁾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서사를 담아낸 작품들은 대중의 현실적 판타지와 결합하며 계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작년부터 사회적으로 ‘페미니즘’, ‘여성혐오’ 등이 사회적 이슈로 재부상하면서, 일부 드라마의 성차별적 연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훨씬 높아졌다. “그래도 재미있다”는 이유로 드라마의 성차별을 감내하던 시청자들이, 고질적인 미디어 속 성역할에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KBS2 <함부로 애틋하게>(2016)다. <함부로 애틋하게>는 신준영(김우빈 분)이 노을(배수지 분)에게 한 행동을 두고 논란이 되었다. 준영이 을과 다투던 도중 을을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타 상의를 벗긴다든가, 난폭 운전으로 을에게 겁을 주는 장면들이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선영 대중문화평론가는 “1990년대 신데렐라 로맨스에서 벽에 밀치기, 기습 키스하기, 주변 집기 부수기 등 가부장적 모습이 낭만적인 것으로 표현되곤 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최근에는 로맨스의 폭력성을 은폐해 온 ‘나쁜 남자’ 판타지가 마침내 시효를 다하고 있다”³⁾고 말했다.

<청춘시대>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배제하지 않는다. 다섯 여자는 남자를 위해 살기보다는, 각자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꿈을 쫓는다. 학보사에서 일하는 지원(박은빈 분)은 똑똑하고 당찬 캐릭터로, 용감한 언론인이 되고 싶어한다. 이나는 한때 조건 만남을 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았으나, 중국에는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자립하기 위해 디자인 학원에 다닌다. 예은(한승연 분)은 극중에서 나쁜 남자 연인에게 시달리기는 하지만, 푸드 칼럼니스트가 되어 성공하고 싶다는 야심 또한 간직한 캐릭터다.

이중 예은은 극이 진행되는 내내 ‘나쁜 남자’ 성향의 연인에게서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한다. 이런 모습이 시청자로 하여금 예은을 전통적이고

2) 최대환 기자, “<풀하우스>는 신세대 성차별 학습용 드라마”, 헤럴드POP, 2004.11.26.

3) 이세아 기자·변지은 기자, “강제 키스·손목 잡아끌기…나쁜 남자 판타지는 끝났다”, 여성신문, 2016.10.05.

의존적인 여성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예은은 후반으로 갈수록 연애 문제에 있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힘들게 이별을 고한 이후 영어 학원을 등록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봉사를 하러 다니며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투쟁한다. <청춘시대>는 점차 변화하는 예은의 모습을 통해, 성평등 문제에 있어 시대적 과도기에 봉착한 현대 사회 여성들을 응원한다.

<청춘시대>의 진가는 예은에게 연대하는 하우스메이트들의 태도에서 드러난다. 남자친구 두영(지일주 분)에게 이별을 통보한 예은은 다시 두영에게 납치를 당한다. 하우스메이트들은 두영이 예은인 척 하며 본인은 잘 있다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두영을 의심하며 함께 그의 오피스텔을 기습한다. 이 장면에서 은재는 두영이 휘두른 칼에 맞아 쓰러지기도 한다. 여성들의 관계를 ‘남자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관계’가 아닌, ‘서로 연대하는 공동체’로 그려낸 셈이다.

이런 <청춘시대>에도 일말의 한계는 있다.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들의 연대를 통해 차별화를 시도하지만, 대중성을 잃지 않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실수였는지 가끔 기존의 젠더 고정관념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사들이 튀어나온다. 가령 늘 주체적이고 똑똑하고 당찬 모습을 보이는 지원은 극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남자와의 연애 라인을 만들지 못한다. 이런 지원을 향해 사람들은 “네가 너무 말이 많아서”라고 놀린다. 반면 신입생 신분으로 학과 선배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은재는 인물 중 가장 우유부단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다. 이는 여자가 앞에서 나서지 말고 남자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야 사랑받는다든가 젠더 통념과 맞닿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캐릭터 구성과 서사의 흐름이 여성주의적 공동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혁신적이다. 강력한 자매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연대를 표현하는 인물들을 통해, <청춘시대>는 동시대 여성들의 ‘리얼리티 판타지’로 자리매김한다.

교감과 공감의 커뮤니티

그런데 이토록 당차게 연대하는 인물들의 활기찬 에너지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는 희미하게 깔린 쓸쓸함의 정서가 있다. 캐릭터 각각에게 그림자가 있기 때문일까. 어느 봄날, ‘벨 에포크’의 가족들이 함께 맥주를 마시던 시간, 지원은 장난삼아 “신발장에 귀신이 있다”는 거짓말을 한다. 그것이 순전히 장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물들 각각은 그 귀신을 자신의 트라우마와 연결하여 믿어버린다. 배 침몰사고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이나는 생사를 가르던 당시 자기 옆에서 서서히 바다 속에 빠져 죽어간 여자아이를 떠올린다. 비극

적인 가정사를 가진 은재는 아버지가 귀신일 것이라 확신한다. 식물인간 동생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진명은 동생의 영혼이 거기에 있다고 믿는다. 각각의 개인사가 주는 느낌은 다소 극단적일 수 있다. 그러나 <청춘시대>는 이러한 극단적인 전사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풀어낸다. 인물들의 어두운 비밀을 처음부터 밝히지 않고, 극 전반부에서는 모두가 열심히 일상을 영위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캐릭터 각각의 비밀은 극이 진행되는 동안 조금씩 드러난다. <청춘시대>는 각각의 개인사가 얼마나 비극적인지 피력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누구나 비밀은 있지만, ‘다들 그냥’ 살아간다는 사실을 천천히 보여주는 것에 집중한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태도는 <청춘시대>를 더욱 현실적인 드라마로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은 비극의 처연한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비극을 ‘끌어안은 채’ 일상을 아등바등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나의 에피소드는 2016년의 한국 시청자들에게 유독 의미가 컸을 것이다. 이나가 10대 때 겪었던 배 침몰 사고가 자연스럽게 세월호 사고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이나의 옆에서 죽어간 10대 여자 고등학생, 시간이 흘러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나, 자기 딸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나에게 접근하며 근처를 맴도는 아저씨의 존재. 이 모든 요소들이 세월호 사고 이후의 한국 상황과 유사성을 띤다. 인간은 가끔 이전의 자신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어떤 사건이나 계기에 봉착한다. 보편적인 한국인들에게, 세월호 사고는 바로 그런 일 중 하나다. 이나의 배 침몰 사고를 보며, 특정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나에게 접근하는 아저씨의 존재는 처음에는 위협적으로 비추어진다. 초반에는 아저씨의 전사가 밝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이후 아저씨의 존재는 그 자체로 치유되지 못한 시대적 슬픔의 현현이다. 그는 이나만 없었다면 자신의 딸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이나를 원망한다. 그러나 곧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르고, 이나에게 자신의 부디 열심히 살아달라고 한다. 배 침몰 사고 이후 인생에 대한 깊은 무력감으로 조건 만남을 하며 방탕하게 살던 이나는 그날 이후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자립을 위한 공부에 매달린다.

요즘 세대를 두고 “정이 없다”거나 “자기밖에 모른다”고 평하는 경우가 많다. 각박한 사회 구조를 생각할 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애정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월호 사고 앞에서, 지진이나 태풍 앞에서, 억울하게 죽은 스크린도어 청소 노동자의 사연 앞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일처럼 슬퍼하지 않았다. 요즘 사람들이라고 휴머니즘의 정서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 변화

로 인해 고독을 기본값으로 갖다 보니, 그것이 드러날 기회가 적을 뿐이다.

이런 시대에, <청춘시대>는 연대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전통적 의미의 가족이 점차 해체되는 우리 시대에 공동체의 의미는 무엇인가? 서로 공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셰어하우스 ‘벨 에포크’에는 그에 대한 나름의 답이 숨어있다.